

전통지향과 근대지향의 간극을 넘어서*

-가람 이병기의 근대의식-

이 경 애 (전북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결론 |
| 2. 본론 |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근·현대 문학의 선각자로 활동해온 가람 이병기의 문학의 근대적 측면을 밝혀서 그동안 널리 알려져 온 식민지 근대화론이 아닌,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자생적 근대화론의 함의를 구체화하고 근·현대 문단의 맥락들을 고려한 이병기 문학세계의 의의를 온전히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람 이병기의 근대의식을 첫째, 언어와 매체의 변화에 따른 근대 의식의 전환, 둘째 장르 변화에 대한 근대성의 인식, 셋째 향유주체의 변화에 따른 근대성의 개념과 인식에 따른 서민정신 순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그동안 전통주의로만 인식되었던 가람의 문학과 학문세계, 사상에 대한 근대적 특징을 밝혀 식민지 근대화론을 극복한, 내재적 근대화론의 구체적 내용을 확보하여 한국근대문학의 출발기에 관한 교육내용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3156).

핵심어 : 가람 이병기, 시조시인, 국학자, 전통지향, 근대지향, 근대화론, 근대의식, 매체의식, 향유주체, 서민문학, 서민정신

1. 서론

가람 이병기(1892~1968)는 우리 전통시가인 시조를 부흥시키고 고전을 부흥시켜 국문학의 전통을 계승한 국학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의 업적은 현대시조의 개척과 국문학 전통을 수호하고자한 노력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가람 이병기의 근대의식에 주목하고 국어 국문학의 근대적 변화를 위한 노력과 혁신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근현대 문학의 선각자인 가람 이병기의 문학을 중심으로 그의 근대의식이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이며, 당대의 논의들과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지 살피고, 가람 이병기의 근대성 논의가 현재의 근대성 연구 지형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가람 이병기 문학의 근대적 측면을 밝혀서, 그동안 널리 알려져 온 식민지 근대화론이 아닌,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자생적 근대화론의 함의를 구체화하고, 근·현대 문단의 맥락들을 고려한 이병기 문학세계의 의의를 온전히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가람 이병기의 근대의식을 첫째, 언어와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의식의 전환, 둘째 장르 변화에 대한 근대성의 인식, 셋째 향유주체의 변화에 따른 근대성의 개념과 인식에 따른 변화의 순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가람 관련 연구는 그의 시조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영역에 국한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연구로 김윤식¹⁾은 가람 이병기

1) 김윤식, 「시조의 재창조와 그 한계-가람론」, 『한국문학사논고』, 범문사, 1973., 「주

의 시학이 바로 예도(藝道)와 생명의식에 닿아 있으며, 그것은 유가적인 형이상학과 관련되어 있다 주장하였다. 그는 시조양식의 특성을 주자학적 세계관과 연관시켜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논의하고, 이병기를 도학파에 대한 사장파로 보았다. 또한 김용직²⁾은 한국현대시조의 미학적 차원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 가람의 의식성향을 풍류와 멋을 추구하는 선비정신으로 집약하였다.

최승호³⁾도 이병기의 유가적 계보를 밝히면서, 가람 문학의 미적 형상방식이 풍류와 멋, 자연시에 나타난 생명사상 등을 미학적 기반으로 하여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이정환⁴⁾은 이병기의 시조를 전통적 서정성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생명적으로 하나가 된 이상적인 시공간인 유토피아, 즉 생명 미학의 세계를 구현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대부분 가람 이병기의 시학을 선비적 내지 유가적 미의식이나 풍류와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으며, ‘자연=조선적인 것’이라는 인식으로, 그를 고전적 전통의 계승자이며 수호자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가람 시조 연구의 대부분은 시조라는 전통 장르의 부흥과 전통 계승을 위한 노력으로 보고 있으며⁵⁾ 전통주의의 틀 안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가람 시조의 현대성에 대한 논의는 그의 시조와 시조론에서 제시한 형식의 실험, ‘실감실정’과 ‘취재의 범위 확장,’ 세련된 시어와 선명한 심상 제시 등 현대시조를 위한 혁신성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다.⁶⁾ 이들은 현대시조를

자학적 세계관과 시조 양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2) 김용직, 『문장』과 문장파의 의식성향 고찰, 『선청어문』 23권, 1995. 4.

3) 최승호, 「가람 이병기의 시와 시학에 있어서 유가적인 미적형상방식」, 『아주어문연구』 제1집, 1994., 『한국현대시와 동양적 생명사상』, 청운, 2013.

4) 이정환, 「전통적 서정성과 생명 미학론」, 『청람어문교육』 제30집, 2005.

5) 이선희, 「가람 이병기 시조에 나타난 전통성 연구」, 『청람어문교육』 11권 1호, 1994.

6) 이기반, 「가람 시조의 운율성; 다양성에의 혁신」, 『시조문학』 103집, 1992. 6.

이지엽, 「가람시조의 혁신성과 현대적 계승」, 『우리시대 현대시조 작가론 II』, 태학사, 2007.

이재복, 「가람 이병기의 「時調는 革新하자」에 나타난 현대성의 의미」 『우리말 글』 52, 2011.

위한 시어, 형식 등 혁신성에 대해 그 의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들을 근대성으로 확장하지는 않았다.

가람의 고전 연구와 관련된 평가도 역시 그를 전통주의자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이형대⁷⁾는 고시조 연구, 고전의 주해와 소개 등 국문학자이면서 국학자로 전통문화 및 민족적인 것에 관한 끝없는 발굴과 탐구, 그리고 그것의 현대적 계승이 가람의 생활이자 문예 및 학술의 중심축이었다고 평가했다. 현대적 계승을 지적하면서도 역시 가람에 대한 평가는 고전과 국학의 전통 계승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차승기⁸⁾는 1930년대 후반 잡지 『문장』의 성격을 전통지향성으로 보고 있다. 그는 『문장』에 대해 근대부정적·근대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가람과 관련된 특성도 전통주의로 이어지면서 창작 속에서 과거적인 것을 재전유하고 하고 있다고 하였다. 황종연⁹⁾도 가람의 고전부흥과 조선학의 특징을 근대와 반근대로 논하였으며, 가람을 선비들의 예도와 풍류의 상속자로 보고 유교적 선비로서 풍류 전통을 논하면서 상고주의자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가람, 정지용, 이태준이 주관한 잡지 『문장』에 대해서도 전통주의나 일제 말 현실 회피 성향으로 보기도 하면서, 그 위상을 고전 발굴이나 ‘전통시’ 위주의 잡지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문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고찰과 함께 근대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논의들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 『문장』을 식민지 근대의 학문 제도의 틀과 연결시키고, 일제 말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문화를 이끌어간 가람을 중심으로 『문장』의 미의식, 예술관, 역할, 제도 등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¹⁰⁾ 또한 『문장』의 전통주의는 단순

7) 이형대, 「가람 이병기와 국학」, 『민족문학사연구』 제10집, 1997.

8) 차승기, 「1930년대 후반 전통론 연구 : 시간-공간 의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 논문, 2003.

9) 황종연, 「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1930년대 후반기 문학의 전통주의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이병기와 풍류의 시학」, 『한국문학연구』 제8권, 1985. 6.

10) 차혜영, 「‘조선학’과 식민지 근대의 ‘지(知)’의 제도 -『문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0호, 2005. 9.

히 옛것에 대한 보존을 의미하지 않았고 전통의 ‘현대적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서구 위주의 근대성을 보완하고자 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¹¹⁾

최근 가람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근대의식을 지닌 문학자로서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최원식¹²⁾은 가람의 선비적 내지 유가적 미의식을 논하면서도 그는 인간에 의한 역물적 근대화를 꿈꾸고 있다고 하였으며, 동아시아적 시각의 비평적 안목을 지닌 고전비평가라 하였다. 또한 허윤희¹³⁾는 근대적 조선어 인식과 문학 건설이라는 학문과 인생관에 대한 근대적 고찰을, 배개화¹⁴⁾는 그의 근대적 문학어의 창안에 대해 고찰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은진¹⁵⁾은 조선적 전통으로 인한 일제에 대한 다른 형태의 저항으로 근대성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박진숙¹⁶⁾은 가람의 조선어 인식과 조선어문학 구상을 위한 노력을 이태준과의 관련성 속에서 규명하고 있다. 정출현¹⁷⁾은 가람을 국학파로 인정하면서도, 한문고전의 우량한 전통을 제대로 알아 거기에 서구의 문화를 제대로 접목시켜야 하는 바람을 가진 “고전문학의 근대적 맹아에 주목했던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의 일원”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가람의 근대의식에 대한 논의는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근대를 단순하게 이분법적 대립적 관계로만 구분하거나, 부분적 시각으로 보는 고찰은 여전히 가람 문학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가람의 주된 활동 시기는 우리 문단에 모더

문혜윤, 「조선어 문학의 역사 만들기와 ‘강화(講話)’로서의 『문장』, 『한국근대문학연구』, 2009 하반기.

- 11) 김효석, 「<문장>지 특성에 대한 재고, 『어문논집』 61, 2015.
- 12) 최원식, 「고전비평의 탄생-가람 이병기의 문학사적 위치, 『민족문학사연구』 49, 2012. 8.
- 13) 허윤희, 「조선어 인식과 문학어의 상상, 『민족문학사연구』 26, 2004.
- 14) 배개화, 「이병기를 통해 본 근대적 문학어의 창안, 『어문학』 89, 2005.
- 15) 우은진, 「1920-40년대 시조 담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16) 박진숙, 「가람의 국학운동과 이태준- ‘조선어’ 문학의 구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3집, 2014. 8.
- 17) 정출현, 「국학파의 ‘조선학’ 논리구성과 그 변모양상, 『열상고전연구』 27집, 2008.

니즘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그동안 근대성에 관한 논의는 많은 연구를 축적하면서 여러 논쟁을 가져왔다. 일본을 통하여 유입된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의 개념과 그를 대표하는 모더니즘의 실패와 공백,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식민성과 근대성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이르는 전형적인 포스트-주 의적 논리를 가져왔다. 또한 근대와 반근대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가르면서 통합적 연구의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가람 이병기의 근대 성에 대한 담론도 전통주의에 가려지고 간과되어 부분적으로만 논의되어 왔 다.

이에 따라 가람의 근대성은 국어학과 고전문학, 현대문학을 동시에 아우르 면서, 문학사를 비롯하여 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와 통찰로 이어갈 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심도 있는 고찰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그것이 한국문학의 문학성을 본질에서 추구하는데 보다 심도 있는 연구로 계속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람 문학의 근대성과 근대의식을 종합적으 로 고찰하여 그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가람 저술 자료들을 조사하여 문헌학적 관점과 해석학 적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관련된 이론이나 다른 작 가들과 비교 대조하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작품 분 석은 구조주의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기술하며 근대주의 이론에 관한 논의 와 비교 분석은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 탈식민주의 이론의 방법을 활용하여 특징과 차이를 살피고자 한다.

2. 본론

2.1. 전통지향과 근대지향의 간극과 길항

우리 문학에서 ‘근대/근대적/근대성’의 개념을 고대/고전(적)/전근대/ 반근 대/비근대/탈근대 등과 대립적 특성으로 살피는 것이 그 개념을 보다 더 구

체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전통은 전근대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근대는 고전적 전통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전통’과 ‘근대’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곤란하고, 또한 논자에 따라 천차만별인 근대성의 개념을 일일이 검토하고 그 실체를 본고에서 규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근대성의 개념이나 조건은 논외로 하고, 다만 가람의 문학에서 드러나는 근대성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그 특징을 새롭게 조망하고자 한다.

그의 時調는 敬虔하고 眞實함이 이를 읽는 이가 平生 敎科로 삼을만한 것이요. 傳來 時調에서 찾지 어려운 自然과 리알리티에 徹底한 점으로서는 차라리 近代의 詩精神으로써 時調再建의 熱烈한 意圖에 敬服케 하는 바가 있다. 이리하여 嘉藍이 傳統에서 出發하여 그와 袂別하고 다시 시류時流에 超越한 時調 中興의 榮譽로운 位置에 선 것이다¹⁸⁾

정지용은 『가람시조집』 발문에서 가람 시조의 특징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과 리알리티에 철저한 근대적 시정신’이라고 표현했다. 지용의 가람 시조에 대한 평은 일반적으로 ‘자연=조선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와 달리 자연을 근대적으로 보았다는 점이 특이하며, 가람 시조의 리알리티를 근대성으로 주목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정지용의 가람 시조에 대한 통찰일 수도 있으며, 모더니스트로서 정지용의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가람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1920·30년대는 서구의 영향으로 일본을 통해 유입된 모더니즘이 유행했던 시기였다.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을 읽고 신학문을 시작한 가람은 젊은 시절 중국이나 해외로 가려고도 했으나 실패한 전력이 있었다. 그러한 그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 유학한 문인들과 가깝게 지냈고 그들의 새로운 문물과 사상에도 관심이 많았다. 당시 가람은 많은 사람들과 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하버드를 졸업한 하경덕¹⁹⁾과 매우 가까이 교류하면서 영어를 배우기도 하였다.

18) 정지용, 「跋」, 『가람시조집』, 문장사, 1939, 103-104쪽.

또한 이광수, 최남선은 물론 임화, 김기림, 정지용, 이태준, 박태원²⁰⁾ 등 당대 대표적인 모더니스트들과도 매우 가깝게 교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서적과 독서를 통해 국내외 동서양의 동향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가람과 1920·30년대 모더니스트들과의 주고받은 상호 교류와 영향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람이 정지용과 이태준에게 준 전통수용의 영향의 대표적 예는 『문장』의 ‘내간체’를 들 수 있다.²¹⁾ 이에 반해 가람이 받은 영향으로는 시조혁신의 핵심인 ‘실감실정론’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이태준의 『문장강화』와 그를 통한 후스의 『문학개량추의』의 영향이었다고 한다.²²⁾ 모더니즘의 감각적인 이미지나 이태준의 『문장강화』는 가람 시조론의 ‘실감·실정(實感·實情)’이나 ‘사생(寫生)’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곳곳에서 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가람의 ‘전통지향성’이나 ‘상고주의’ 등은 정지용과 이태준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전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상호간에 영향을 주면서 서로 수용하고 적용했던 문학적 활동들을 전통주의나 모더니즘이라 이름하여 전통지향과 근대지향의 이분법적

19) 가람일기를 통해 매우 많은 곳에서 교류가 발견되는 하경덕은 1925년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 1928년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동교 조교가 되었다가 1929년 귀국, 조선 기독교 청년회 사회 조사 위원회 총무를 거쳐 1931년 연희 전문학교 문과 교수로 취임, 1943년까지 문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홍사단에 가입, 후진 양성과 독립 운동에 힘썼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코리아 타임스』를 창간하여 사장에 취임, 이어 서울신문사·합동통신사의 사장을 역임하고, 잡지 『신천지』를 발행했다. (『인명사전』, 민중서관, 2002.)

20) 가람일기에 나오는 교류 기록으로 임화와는 『어문학총서』 원고 투고, 함께 이동백 「춘향가」 시청, 녹음과 기록함. 국어교과서 편찬위원회 추천 등이 있다. 김기림과는 외간상에 참석, 박태원, 정지용과 함께 문단회합 등 기록이 있다. 박태원은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출판기념회 참석. 『지나소설집』의 신간평 쓰기 등 함께한 기록들이 있다. 정지용과 이태준은 같은 휘문 출신, 『문장』 동인 등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21) 배개화, 『『문장』지의 내간체 수용 양상』 『현대소설연구』 21, 2004, 141쪽.
“가람의 전통수용의 영향력으로는 대표적으로 『문장』의 ‘내간체’를 들 수 있는데 ‘내간체’는 정지용, 이태준의 공통된 미의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매개였다.”

22) 박진숙, 앞의 글, 314-315쪽.

구도로 구분하고 논하는 것은 지금의 시각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것이 당시 유행하는 사조나 경향을 그렇게 나누어 구분한 것이기는 하지만 서로의 기호나 선택의 문제였지 전통과 근대로 구분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추구하는 문학인들의 다양한 시도와 탐색으로 잔주되며,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하는 한국문학의 근대성의 통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조나 고전을 주해하고 소개하던 전통적인 고전 연구자로서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현대의 새로운 사조나 사상에 민감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탐구하고 모색했던 가람의 활동과 근대의식은 1920·30년대 모더니스트들과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現代文學으로도 그러다. 海外文學으로서 오는 것도 무론, 알아야 하지마는 우리로는 우리 古典의 그것을 到底히 저바릴 수 없다. 우리 古典에서 나오는 새것이라야 하겠다.²³⁾

이 글에는 현대문학이 고전과 단절되고 해외문학에 점령당한 시대에 ‘고전에서 오는 새것’을 모색해야 한다는 가람의 의지와 근대 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1920·30년대 이미지즘이나 초현실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모더니즘은 일본을 통하여 유입된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의 개념으로, 이식문화론이나 전통단절론으로 문학사에 기술되고 있다. 이식문화론에 대한 반론의 여지도 있지만 모더니즘은 우리 문단사에 실패와 공백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1920·30년대 모더니즘은 조선의 근대문학이 단순히 과거에 대한 단절과 서구라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수용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문화 발전에서 전통과 근대성의 개념은 서로에 대해 끊임없이 길항하는 관계와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역동적 에너지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근대

23) 이병기, 「향가와 현대시 시어의 원천을 밝힘 4회」, 『동아일보』, 1939. 1. 17.

성 개념의 전면화는 이에 맞서는 전통의 개념 또한 활성화되기만 한다면, 양자의 모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에너지의 수준을 오히려 우리 문학에서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지점에서 가람의 전통성과 근대성의 간극에 대한 논의는 그의 문학과 학문이 단순히 과거 전통의 재전유라고만 인식하는 피상적 선입견에서 벗어나 전통지향과 근대지향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개념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람의 전통 지향과 근대 지향의 상반된 두 의식 간의 간극과 길항 작용에 대한 연구는 그의 문학과 학문세계, 사상적 특성을 온전하게 밝히는 주요 열쇠가 될 것이며, 한국 근대 문학의 출발기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극복한 내재적 근대화론의 구체적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동안 널리 알려져 온 식민지 근대화론이 아닌,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자생적 근대화론에 대한 함의를 구체화하고, 근·현대 문단의 맥락들을 고려한 이병기 문학세계의 의의를 온전히 살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2. 언어와 매체의 변화에 따른 근대 의식의 전환

2.2.1. 언문일치와 자국어 인식

근대성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한문 중심에서 한글 중심의 언문일치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자국어 인식에서 비롯한다. 시조를 우리 문학 최고의 장르로 여기고 부흥시키고자 했던 가람은 무엇보다도 언어와 문자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한문 중심에서 한글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시조를 비롯하여 종래 노래로 불리어졌던 우리 문학의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이행하고 있다는 근대성을 인식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국어를 보급하고 수호하기에 노력하면서 자국어 문제에 이론적으로 가람만큼 천착한 국문학자는 거의 없다. 가람의 국문학 연

구와 창작은 특이하게도 자국어의 글과 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언문일치의 근대의식에서 출발한다. 복잡한 다국적 언어 사용 환경에 있었던²⁴⁾ 가람은 서구 르네상스 시대 근대문학 정신은 자국어 중심의 자각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가람은 한자어 중심의 문학에서 한글 중심 문학으로의 이행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언문일치와 자국어 사용을 위한 한글운동에 헌신하였다.

주시경의 제자로 그 영향을 크게 받은 가람은 권덕규, 임경재 등과 조선어 연구회를 창립하고 조선어학회 핵심위원으로 언어문자 보급운동에 적극 활동하였다. 표준어 사정, 맞춤법 통일안 작성, 외래어 표기사업, 사전편찬 사업 등에 참여하였으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1942)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한글 보급과 수호를 위해 열정을 기울였던 가람의 국어연구는 궁극적으로는 훌륭한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것이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언문일치와 우리말 정리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였다.²⁵⁾

무엇보다도 한글을 위한 가람의 가장 큰 공적은 우리글로 표현된 훌륭한 문학작품과 이론을 생산해낸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국어 수호는 국어학적 연구보다는 국문학적인 연구와 창작에서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국학을 빛낸 거인으로 손꼽는 설총·균여대사·김만중에 대한 가람의 평가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24) 조선후기까지 이어진 한자 중심의 사회의 끝자락에 태어난 가람(1891년)은 어려서 고향에서 한문을 사숙(私塾)했다. 개화 이후 한글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가운데 식민지 시대 일제가 세운 한성사범에 입학하여 일본어로 수학하였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주시경선생의 조선어강습원에서 조선어문법을 배웠다. 또한 영어와 중국어, 에스페란토어도 배우고 있었다.

25) 그가 발표한 한글 관련 연구는 「우리문자의 보급책-정음사용으로 활자개량에까지」, 『신민』 19호, 1926. 11., 「조선어 연구가 필요」, 『문예공론』 1호, 1929. 5., 「한사자 음독」, 『전북대학교보』, 1955. 5. 25, 「긴급한 국어문제」, 『조선일보』, 1949. 2. 1.-2. 15., 「말은 인간의 거울:우리말을 찾으라」, 『동아일보』, 1938. 1., 「말의 관습으로 된 변화」, 『동광』 10호, 1927. 2., 「신철자법을 실행하라」, 『동아일보』, 1930. 11. 19., 「우리말에 섞인 한어문제,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조선일보』, 1939. 11. 19., 「우리말의 표기에 몇몇」, 『동광』 9호, 1927. 1., 「이것이 이거시냐 이거디냐」, 『조선일보』, 1927. 10. 24.-10. 25., 「한자 존폐에 대한 소감」, 『백민』, 1947. 9. 등이 있다. 이들 주제는 당시 우리 국어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이었다.

과연 한문은 그물 맺은 것처럼 서로 얽혀있다는 것이 적절한 해설이다. 우리 글은 주어 부사 술어의 차례로 죽 내려 새기게 되었지만 한문은 꺼꾸로 이리 저리 새기게 된만큼 難澁한 글이다. 이렇듯 우리는 쉽게 읽으며 우리 노래나 글을 저 사람들은 모른다하고 펍 분개한 말이다. 신라 말의 崔承祐, 崔致遠 따위가 당의 유학생으로 한시 한문만 잘하여 뽑내던 것을 대사와 같은 거대한 국학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여복 분개하였는가? 대사를 鑽行하는 崔行歸야말로 대사의 성스러운 그 정신을 잘 알고 이런 문구를 지어 전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몇 천 년 이래 이런 當當 痛快한 문자를 전하는 이가 몇이나 있는가? 한갓 중국문자의 노예가 되어 李杜, 韓柳의 餘唾나 주어가지고 수두룩한 시문집들을 남겼을 뿐이었다.²⁶⁾

설총은 이두로 국어 국문학을 발전시켰으며, 균여대사는 이두로 향가를 지어 우리 언어와 문학의 묘리(妙理)를 드러내 밝혔다는 점에서 가람은 그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이하게도 신라 말 대학자인 최치원이 한시 한문만 잘하여 뽑내던 것을 분개하였으며, 반면 이두로 향가를 기록한 균여대사의 정신을 성스럽다고까지 하였다. 이는 당시 한국문학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주어 술어를 순차적으로 해독하는 국어에 비해 순서가 복잡한 한문의 해독에서 벗어나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길거리의 나무하는 아이나 물 길는 여자들의 노래에서 우리말 글의 진가를 발견한 김만중을 특별한 정신을 가졌다고 극찬했다. 같은 맥락에서 용비어천가나 석보상절은 우리 말글의 올바른 전범을 알뜰히 보여 준 문학이라고 귀중하게 여겼다.²⁷⁾ 이러한 가람의 자국어 인식은 그가 국어 연구자로서의 연구나 고전 연구자로서 전통 계승의 의의뿐만 아니라 근대적 변화에 대한 전환으로 의식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26) 이병기, 「국학의 세거인」, 『민성』 6권 1호, 1950. 1, 62쪽.

27) 이병기, 『국문학개론』, 일지사, 1951, 148쪽.

2.2.2. 활자매체의 인식과 근대

언문일치와 자국어에 대한 언어인식과 더불어 가람의 근대성을 보여주는 다른 하나는 그것이 활자로 출판되는 매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근대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인식이다. 즉 매체 변화에 따른 근대성의 자각과 근대로의 변화의식이었다. 인쇄 문화의 발전에 따른 서적의 대량 출판으로 인한 문화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것은 근대적 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3개 민간 신문을 허가하였다. 당시 1920년 일기에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920. 4. 2.(토) 간봄부터 교회며 회사며 신문 잡지가 마치 저문 하늘에 별들이 하나씩하나씩 돌아나듯이 생겨난다. 어느 것이 혜성 돌듯이 한동안 있다가 없어질는지, 어느 것이 위성이나 항성같이 영원히 있을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네의 생활도 아주 새로워지며 복잡하여지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쁜 바라.²⁸⁾

가람은 집으로 동아일보를 청구하여 받아보았다. 보자마자 이로 말미암아 그것들의 느낌과 깨침이 많을 것이며 생활이 새롭고 복잡하여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가람은 이미 인쇄매체의 영향력을 인지한 것이었다. 신문 잡지가 발간됨으로써 그것을 읽는 일반 서민들이 무지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으며, 또한 그들을 선도하여야겠다는 계몽적 의도를 갖고 이를 반겼다. 이후 그는 신문과 잡지에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²⁹⁾

28) 이병기 저, 정병욱 최승범 편, 『가람일기』, 신구문화사, 1976, 108쪽.

29) 이경애,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을 위한 자료 정리 및 가람학 정립의 방향 연구』, 『국어문학』 64, 2017. 3, 249-265쪽. 가람은 여러 신문과 잡지에 우리 글을 알 만한 이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발표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소망대로 가람은 1920년대부터 1960년대 까지 단행본 36종, 신문·잡지에 발표된 자료의 수량으로는 총 800여 편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발표하였다

인쇄에서 기호는 중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근대문학이란 본질적으로 민족 공동체를 상상케 하고, 자각케 하는 힘을 바탕으로 성장하였거니와, 작가와 독자, 그리고 연구자를 포함한 문학 공동체 전체의 상황 속에서 일종의 기호 공동체, 혹은 해석 공동체의 성격으로서 문화적 공모의 성질을 길게 발현하는 의미체의 기체이다.³⁰⁾ 이러한 기호에 대한 타자의 종속성이 정치적으로 “상상의 공동체”를 탄생시키고 문학적으로는 ‘의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³¹⁾

난삽한 한문문학에서 언문일치의 한글로 조선 문학을 건설하는 것이 가람 문학의 목표였으며 과제였다. 그것은 한문 중심의 양반 사회에서 벗어나는 자각이었다. 또한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말과 글자로 우리 민족 공동체를 상상케 하고 자각케 하는 힘을 갖게 하고자 하는 의식이었다. 한글로 된 신문과 잡지, 출판 서적 등 우리 문자로 된 대량의 활자 매체 변화는 언문일치의 자국어 인식과 더불어 근대를 이끌어낸 주요 변화 요인이다.

필사문화가 아닌 인쇄 문화의 발전에 의한 서적의 대량 출판은 활자매체의 변화에 의한 근대성의 대표적인 특징인 만큼 현대문학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언문일치, 즉 말과 글에 대해 문학자적 관심을 가진 가람은 신문과 잡지, 출판 서적 등 대량의 활자 인쇄 매체에 의해 우리 사회가 구술 문화에서 대량 문자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언어와 매체, 장르의 문제는 가람 문학의 화두였다.

문자매체와 활자매체에 대한 특별한 의식은 문학의 본질이 매체의 본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매체의 상상력이 시의 범주와 본질을 구성한다³²⁾는 논의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와 매일신보 등 신문과 잡지 등의 매체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지닌 그는 그것이 일체의 식민지 전

30) 한형구, 「한국 근대 문학과 ‘민족’(民族)이라는 상상 공동체-민족주의적 정열, 혹은 한국 근대문학 형성의 주동력」, 『한국근대문학연구』 제6권 제2호, 2005. 10, 202-236쪽.

31) 윌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193~194쪽 참조.

32) 박현수, 「한국 전위시의 조건과 근대출판의 시학」, 『정신문화연구』 제3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45쪽.

략³³⁾이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활자매체의 보급으로 인한 과급 효과를 충분히 이해한 근대적 지식인이었다. 그는 문학의 본질이 매체의 본질에 따라 변화하며, 그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가 장르의 대표적 특성을 지닌 시조가 ‘부르는 시가’의 개념이 ‘짓는 시가’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었다. 이는 문학 장르에서 가져올 근대성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언문일치의 말과 글에 대한 문학자적 관심과 더불어 시조라는 근대문학 장르 형식의 정착과 창작에 대한 탐구는 가람 문학이 지닌 근대성의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다. 1920년대 가장 주요한 담론 중 하나는 시조가 민족문학으로서 근대문학의 주요 장르로 부흥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가람은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 문학계는 한문의 지배를 벗어나야 하고 서구와 같은 문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식이 매우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조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것이 전대의 문화유산이며, 과거적인 것으로 분류되어 부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가람은 시조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근대문학으로서 시조를 창작하기 위한 탐구를 시작하였다. 이는 창(唱)으로 불렸던 시조문학을 현대시조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짓는 시조’란 활자 문자매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부르는 노래의 음악성을 대신하여 격조를 놓은, 실감·실정으로 대표되는 가람의 시조혁신은, 시조의 현대성 획득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왔다. 그것이 순수예술의 지향이거나 모더니즘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조선적 전통으로 인한 일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저항의 가능성³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람의 시조혁신론의 핵심은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33) 한기형, 『“이중출판시장”과 식민지 검열 -“토착성”이란 문제의식의 제기』, 『민족문학사연구』 57, 2015, 134쪽.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체 독자층을 놓고 볼 때, 12년간 상 30개 매체 가운데 조선어 매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조선양일보』 등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6종은 일본에서 수입된 것과 재조 일본인들이 간행한 매체들인데 그 규모가 조선어 신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34) 우은진, 앞의 글, 95-96쪽.

의 이행과 언어와 매체에 대한 근대의식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시조는 혁신하자」에 나오는 ‘실감실정(實感實情)을 표현’, ‘취재(取材)의 범위 확장’, ‘용어(用語)의 수삼(數三)’, ‘격조(格調)의 변화’, ‘연작(連作) 형식’, ‘쓰는 법 읽는 법³⁵⁾의 6가지 주요 항목들의 본질은 모두 문자문화로 된 문학의 구현을 위한 방안의 제시였다.

2.3. 장르 변화에 대한 근대성의 인식

근대문학이 ‘구술(구전)문화’에서 ‘문자(인쇄)문화’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가람은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하였다. 물론 문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 필사문화 사회는 종이와 붓이 귀하여 대중들이 문학을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쇄문화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근대의 활자 문화로 이행하게 된 문학 환경에서 가람만큼 근대의 혁신적 변화를 인식하고 절실하게 논의한 문학자는 매우 드물다.

신문은 민족과 같은 상상의 공동체를 ‘재현’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한다. 즉 인쇄언어는 언어에 새로운 고정성을 부여하고 활자어들의 고정화와 그들 중의 지위 분화는 그 기원에 있어서 자본주의, 기술, 그리고 인간 언어의 다양성간의 폭발적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과정이다.³⁶⁾ 언어와 매체의 변화는 당연히 장르 변화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매체는 근대문학의 탄생과, 양식 등에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³⁷⁾

오늘날 근대에 생겨난 거의 모든 민족 국가들은 민족활자어를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도 우리 언어를 가진 민족 국가로 한글활자어를 사용하여 신문과 잡지 등을 출판함으로써 우리 근대 문학의 탄생과 더불어 다양한 양식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현대시조도 활자어들의 고정화와 지위 분화에 제공된

35) 이병기, 「시조는 혁신하자」, 『동아일보』, 1932.1.23.-24.

36)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3, 48-73쪽.

37) 박현호, 「식민지 조선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근대 미디어와 지식인, 문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현호 외,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18쪽.

인쇄 기술적 수단에 의해 탄생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시조와 마찬가지로 개화기 가사나 창가 등의 구술 장르는 문자문화로의 변화에 의해 그 장르가 바뀌게 된 예이다.

종래(從來) 우리는 읽기보다도 부르기 위하여 지었다. 지금도 唱歌作詞를 하자면 그 作曲의 형편까지도 헤아리어야 한다. 그저 종작없이 지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 詩歌치고는 부르지 않던 것이 없었다. 이걸 우리 歌樂史가 증명하고 있다. 이리하여 詩歌의 각종 形態는 그 唱調로서 규정(規定)된 것이라고 나는 斷言하는 바이다.³⁸⁾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람은 종래 우리 시가의 어원과 형태를 규정하면서 우리 시가 문학의 본질을 ‘부르는 노래’로 파악하였다. 한자나 이두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우리말 문장을 기록하기에는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가문학은 노래로 이어왔던 것이며 따라서 ‘문자문화’가 아닌 즉 ‘구술 문화’였음을 파악하고 한 주장이었다.

이러한 구술문화가 문자문화로 바뀌는 시기와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이 문제에 대해 『문장』이 주관한 신춘좌담회(1941. 1)를 살펴보면 그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이 좌담회에서 제기된 ‘현대시조와 창(唱)’의 문제에 대하여 ‘시조에 있어 요즘 작자들도 창(唱)을 생각하고 짓는가’ 하는 질문에 가람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그런 방면에 부들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가지고 新詩나 다름없이 표현할가 하는 것이 새로운 시조의 길입니다. 格式이나 調를 맞추는 것보다 무엇을 표현할가-. 이것이 생명입니다. 거저 調나 格式을 맞추어 하루아침에 이천 수 삼천 수, 지어낸뎛자 아무런 값이 없다고 생각합니다.³⁹⁾

38) 이병기, 「시가문학의 본질과 종류」, 『국어문학』 1953. 『가람문선』(신구문화사, 1966. 468쪽.)에 재수록. 『국문학개론』, 일지사, 1961, 12-13쪽

39) 「문학의 제문제」, 『문장』 3권 1호. 1941. 1, 149쪽.

가람은 과거 창(唱)이 주였고, 문학적인 면은 주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개혁된 적이 없던 고시조에 비해 최근 시조 작자들은 ‘음악이 아닌 시로 되었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조가 설사 음악성을 띠었다 하더라도 곧 음악이 될 수는 없다하면서 이제 시성(詩性)에 눈뜨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현대문학에서 시조는 이제 창(唱)을 떼어버렸으며 시조는 이미 창과는 결별하여 현대시의 한 분야가 되었다고 하였다. 불과 이삼십 년 사이에 시조는 ‘부르는 시조’에서 ‘짓는 시조’⁴⁰⁾로 확실하게 바뀌었던 것이다.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자(인쇄)문화의 영향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전통 구술장르에서 특히 시조만이 현대적인 장르로 남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가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문학으로서의 시조 장르의 부흥은 전통장르로 조선적인 것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 의지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조 부흥에 대한 의도적인 여론 조성의 반향이 우리 민족 장르의 부흥이라는 논리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장르의 선택은 대중과 독자의 선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구술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탄생한 고전문학이 과연 ‘문자문화’를 배경으로 출현한 현대문학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가람의 시조론에서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으며, 그의 시조론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채워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조란 무엇인가」, 「시조는 부흥할 것인가」, 「시조는 창(唱)이나 작(作)이나」, 「시조의 명칭과 형태」, 「시조 감상과 창작」 등 그는 시조 이론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다.⁴¹⁾ 이러한 자료는

40) 이병기, 「시조는 혁신하자(八)」, 『동아일보』, 1932. 1. 30.

41) 이들 가람의 시조론의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다. 「시조란 무엇인가」. 『동아일보』, 1926. 11. 24-12. 13., 「시조에 대하여」, 『휘문』 4호, 1926, 「시조원류론」, 『신생』 2권 1, 2, 3호, 1929. 1. 2. 3., 「시조와 그 연구」, 『학생』 2권 1호-9호, 1930. 1- 10., 「시조는 부흥할 것인가 : 무엇이던지 정성스럽게 하자」, 『신민』 23호, 1927. 3., 「시조의 현재와 장래」, 『신생』 2권 4호, 6호, 7호, 1929. 4-6, 「시조는 창이나 작이나」, 『신민』 58호, 1930. 5., 「시조의 발생과 가곡과의 구분」, 『진단학보』 창간호,

구술 장르가 아닌 문자문화의 장르인 ‘짓는 시조’를 위한 이론이었다.

가람은 일제강점기에 현대시조를 조선의 ‘전통’ 장르로 확립해왔으며 그것은 또한 ‘조선적인 것’을 형상화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전통장르 확립은 ‘고전에서 나오는 새것’의 근대화 작업이었다. 이에 시조는 ‘부르는 시조’에서 ‘짓는 시조’로 환골탈태하였고 살아있는 전통장르로서, 조선적인 것의 전유로서 현대 문학의 한 장르로 부흥하게 된 것이다.

가람은 잡지 『문장』을 통해 매체적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현대시조 장르의 정착에 성공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문장』의 유통은 시조추천제에 의한 훌륭한 시조 작가의 배출과 인쇄매체에 의한 독자 형성으로 장르 발전 효과를 확실하게 보여준 예이다.

“우리 시가는 노래로 불리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⁴²⁾고 하는 주장은 우리 시가가 구술문학으로 전해왔음을 뜻한다. 수천 년간 노래로 불리어 내려온 우리 시가는 그 기원에서부터 구술문학이었다. 문자와 음성의 관계는 시 장르에서 교묘한 보충 관계를 시사한다.⁴³⁾ 인쇄 문화의 시(詩)에서 의미작용이란 기호가 소통될 수 있는 언어 공동체의 합의를 저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전유함을 뜻한다. 이러한 언어와 매체의 변화는 곧 장르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는 시의 상상력이 곧 매체의 상상력인 것이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읽는 시조여야 한다는’ 가람의 시조 혁신의 주장이 근대 인쇄문화의 시 장르와 구술문화의 현시를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보충하고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구술문화와 필사문화와 인쇄문화의 매체 발전사에서 시 장르는 양식의 전환이 아닌 양식의 축적을 가져왔다⁴⁴⁾는 논의를 충분히 뒷받침하게 한다.⁴⁵⁾

1934. 11. 28., 「시조창작과 창」, 『현대』, 1957., 「시조론-그 명칭과 형태에 대하여」, 『조선교육』 1권 4호, 1947. 8., 「시조감상과 작법」, 『삼천리』 8권 4호, 1936. 4.-1935. 12., 「시조창작과 그 기술」, 『자유문학』 4권 4호, 1959. 4., 「시의 진리」, 『시조와 창작론』, 1957.

42) 이병기, 「시가문학의 본질과 종류」, 『국어문학』, 1953. 『가람문선』(1966. 468쪽)에 재수록.

43) 마셜 맥루언, 김성기·이한우 역,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2, 231쪽 참조.

그 인과 관계는 별도로 논의하기보다는 함께 논의해야 할 항목들이다.

우리 국어와 매체의 변화는 유동적인 국문학의 장르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가람은 국문학개론과 국문학사에서 장르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이론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의 갈래론은 산문문학과 시가문학의 이분법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의 장르 이론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그는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주석을 바탕으로 문헌에 의한 서지적 자료의 수집과 분류를 통해, 장르론, 발생과 기원, 이론과 해석, 어문학적·미학적 접근, 연회성, 음악성, 시대적·역사적 성격의 연구를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새로운 근대연구에서 문학의 장르변화는 시가문학과 산문문학의 장르의 변화에 대한 매체의식으로 문학사를 비롯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파급력을 지닌 다양한 연구가 전개될 수 있었다.

가람은 시가문학을 부르는 노래로 규정하면서 판소리를 ‘극가문학’이라 하여 처음으로 국문학 연구로 끌어들이 시가문학에 포함시켰다. 이후 판소리 연구는 문학뿐만 아니라 국악이나 연극, 공연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평을 열었다.⁴⁶⁾ 우리 국문학에서 판소리만큼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 장르는 없다. 그동안 판소리는 문학적 연구, 음악학적 연구, 연극학 내지 공연학적 연구들이 분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다른 모양의 방식일 수 있는 학문, 가능성의 유동 공간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는 종합적인 예술이며 그동안의 연구 현황들은 이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44) 이강하, 「매체적 관점에서의 한국근대시 시제(詩題) 연구 : 개화기시가에서 근대 자유시 이전까지」, 『한국언어문학』 92, 2015, 292쪽.

45) 이병기, 『놀애의 소리와 뜻』, 『현대평론』 1권 7호, 1927. 8.

46) 가람의 판소리 필사와 연구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이른다. 이와 관련 참고할 수 있는 판소리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루지기타령』, 국제문화관, 1949, 「토별가」, 『문장』, 1940. 5., 「토별가와 신오위장」, 『문장』, 1940. 5., 「서민문학의 대두」,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극가」, 『국문학개론』, 1961., 「극가와 소설」, 『전북대학교보』, 1955. 3. 24.

2.4. 향유주체의 변화에 따른 근대의식 : 서민정신

언어와 매체를 기본으로 장르 변화를 이끌어낸 가람의 근대의식은 문학에 대한 향유주체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진다. 자국어 활자매체로 문학을 즐기면서 새로운 장르에 접하는 문학 환경의 변화는 당연히 문학 작품 그것을 창작하고 즐기는 대중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인쇄문화는 향유자들이 소수 양반계층에서 다수 서민계층과 분리되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계층을 구분하지 않는 대중을 대상으로 향유 가능성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매체와 장르의 변화는 새로운 대중문화를 선도할 수 있었다.

가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문과 잡지에 많은 글을 발표했다. 그중 동아일보에만 185편의 원고를 발표했다. 시조, 번역시, 평론, 기행, 수필, 심사평, 잡문, 역사이야기 등 횡수로는 354회나 된다. 또한 조선일보에도 63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이는 연재 소설가들의 글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발표 횟수를 보여준다.⁴⁷⁾ 1920년대부터 이와 같이 많은 글을 신문에 꾸준히 발표하면서 독자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문학의 향유 주체가 대중됨을 알고 이들과 매우 가까이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는 신문과 잡지에 발표된 문학 작품들이 계층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할 수 있다는 대중적인 근대의 한 변화를 읽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문장』 창간호(1939. 2)부터 폐간될(1941년 4월 통권 26호) 때까지 매호마다 빠지지 않고 글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일제 말기 우리 문학을 지키는 등불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동아일보』와 『문장』의 ‘시조고선제’는 시조작가들의 배출 무대가 되었고 이를 통해 훌륭한 시조작가들의 배출되어 현대시조의 맥을 잇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인쇄매체에 의한 장르 발전뿐 아니라 독자형성이라는 향유주체의 변화와 영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예이다.

47) 그 외 『매일신보』, 『가정신문』, 『국도신문』, 『국학대학보』, 『경향신문』, 『대학신문』, 『독립신보』, 『동광신문』, 『민중일보』, 『삼남일보』, 『서울신문』, 『시대일보』, 『자유신문』, 『전북대학교보』, 『전북일보』, 『제3특보』, 『조선중앙일보』, 『중외일보』, 『태백신문』, 『학도주보』, 『한국일보』 등 신문에 다수의 글을 기고하였다.

그가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대중들과 함께 하고자 한 근대의식은 무엇보다도 국문학사에서 보여주는 서민정신의 표출에 의한 ‘서민문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서민문학은 자국어에 의한 다수의 서민층의 향유문학으로 가능하고, 그에 따른 서민정신은 문학비평의 근대적 개념을 특징짓는 근대의식으로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서민문학과 서민정신의 개념은 개인적으로는 평등의식을 강하게 지녔던 가람의 의식 성향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1920년 6월 2일. 더웁다. 신명회군의 편지 오다. 송정식군을 찾아 보다. 길가에만 나서면 아니꼽게 보이는 것이 있다. 인력거! 인력거! 한가지 사람으로 누구는 위에 타고 누구는 앞에서 끄는가. 탄 이는 오히려 더워하여 부채를 가지었다만은 끄는 이는 땀을 뚝뚝 흘리면서 설 겨를도 없이 바빠 달아난다. 진실로 타지도 말고 끌지도 마는 것이 좋겠다. 한 가지 사람으로서 어찌 그럴가.⁴⁸⁾

이 일기에 의하면 가람은 인력거 타기를 특별히 싫어했음을 알 수 있다. 땀을 뚝뚝 흘리며 손님을 태우고 가는 인력거꾼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는 위에 타고 누구는 앞에서 끄는가”라고 반문하는 가람은 “타지도 말고 끌지도 말자.”고 강한 희망을 드러낸다. 이는 가람이 인간은 서로 동등하며 위아래 없이 평등하다는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의식은 국문학사에서 서민문학을 중요한 장으로 기술하게 한 주요 정신이며 되고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문학적 근대정신과 맥락을 같이한다.

가람은 조선 후기 부상한 서민문학을 처음으로 주목하였으며, 그 문학사적 의의를 본격적으로 부각시켰다. 조선에서 한문이 양반의 언어라면 언문은 서민층과 부녀자 층의 언어였다는 언어적 계층의식과 그에 따른 문학적 특성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조, 實事求是의 학

48) 이병기, 미발표 일기.

풍은 이러한 서민층을 발판으로 줄기찬 힘을 뺏기 시작하였다. 그리하매, 문학도 자연히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기 시작하였으니, 저 許筠의 「洪吉童傳」은 실로 그런 문학의 효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서민 문학의 현상으로, 우리는 잡가의 발생, 가사의 변질, 사설시조의 발생, 소설의 발흥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이 서민 문학의 백미로 극가 즉 「판소리 문학」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劇歌는 그 때 천대를 받던 廣大·妓生의 작이요 唱이었다. 기생·광대에는 義俠 豪放한 천재적인 예술가가 많았다.⁴⁹⁾

조선 후기 등장한 서민들의 생활감정과 의식형태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는 원동력을 얻게 된 「홍길동전」·「춘향전」·「심청전」·「홍보전」과 같은 소설은 모두가 서민 대중들의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었으며, 서민적 의식과 서민적 생활감정을 내용으로 한 작품들이었다. 이것은 양반중심 문학예술의 주요 생산자나 향유층 세력이 여성이나 서민예술가 중심으로 변동하는 문학사의 거대한 변동국면을 예리하게 포착한 것으로 가람의 근대정신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가람이 마지막으로 저술한 책은 『국문학전사』(1957)인데 이 책은 가람의 국문학 연구의 총 결산이라 할 수 있는 저서이다. 이 책의 저술 시기에 특히 그가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인 강의와 원고는 ‘서민문학’이었다. 정년퇴직(전북대학교, 1956. 8)을 맞이한 가람은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중앙대, 서울대, 전북대, 홍익대 등 여러 대학에 출강하였다. 이때 그가 맡은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에게 ‘서민문학’을 집중적으로 강의하였으며 그 원고를 집필하였다.⁵⁰⁾

그는 실사구시의 학풍을 발판으로 등장한 서민문학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49) 이병기 백철,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177쪽.

50) 가람 일기의 ‘서민문학’ 관련 기록은 총 15군데에 이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956년 4월 14일. 終日 집에 있어 庶民文學 草稿를 썼다.
 · 1956년 5월 8일. 素空과 함께 法雨寺 栢堂 金鍾來를 찾았다. 穀茶와 點心. 둘 아와 大學生들을 데리고 庶民文學 講義.
 · 1957년 2월 4일. 立春. 따듯하며 짓는다. 서울校 文理大 나가 庶民文學, 古典 書誌 終講했다.

잡가의 발생, 가사의 변질, 사실시조의 발생, 소설의 발흥 등 서민문학의 대두와 서민문학의 발흥을 기존의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서민정신, 산문정신으로 파악하면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다. 특히 서민 문학의 백미로 판소리문학을 새로운 장르로 극찬하면서 천대 받던 광대(廣大)·기생(妓生)들의 작품을 수준 높게 평가하고, 그들에게 천재적인 예술가가 많았음을 부각시켰다. 이들 서민층에 의해 주도된 판소리문학뿐 아니라 잡가 등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한문학을 비롯하여 전기, 기행, 설화, 내간, 일기, 야담, 잡록류를 문학사 영역에 포함하여 그 폭을 확장하였다. 또한 여성문학류를 발굴하여 문학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특히 한국문학사를 더욱 풍요롭게 하였다.

양반계층의 몰락과 서민의식의 대두는 근대의 서막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서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사실적(寫實的)인 수사(修辭)나 내용은 서민층을 배경으로 발흥(勃興)한 일반적인 문학의 형태는 충분히 새로운 경향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구라파에서도 근대정신이 서민 대중을 기반으로 하여 일어났음과 같이, 가람은 이미 18세기 조선의 서민문학에서 서민정신을 보았으며 작가를 비롯한 향유계층의 변화를 확실한 변화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서민정신의 발흥이 근대정신의 시작이며 근대적인 변화는 곧 서민문학임을 『국문학전사』(1957)에서 선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근대성 기점은 조선 후기, 개화기, 신문학운동 시기 등으로 사회·문화적 성격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다. 이 가운데 가람이 제시한 서민정신과 서민문학의 이론은 근대의 기점을 18세기 영·정조대로 끌어올린 김현·김윤식의 『한국문학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⁵¹⁾ 김현·김윤식의 『한국문학사』에 기술한 내재적 발전론은 70년대 촉발된 근대문학 기점에 대한 논의를 일본의 군국주의적 발전사관에 의거하고 있는 내재적 발전론의 또 다른 한 양상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실학사상의 근대성’을 입증하려는 논의를 성급하게 끌어들이거나 근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갖는 주요한

51) 김현·김윤식의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47-108쪽.

의미는 우리 문학사의 근대의 기점을 개화기 또는 1900년대 이후 서구 문화 유입의 영향으로 보는 이전의 이식문화론과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였다는 데 있다. 즉 우리 문학사의 근대적 특징이 외세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8세기부터 이미 자생적으로 존재해온 지속-변화의 틀로 내재적 발전론을 입증하고자 하는 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성의 담론은 내재적, 외재적, 국제주의적, 전근대와 근대가 진정으로 회통하는 작업을 전제로 고전문학에서의 근대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⁵²⁾는 견해는 매우 타당하다. 또한 30년대 조선주의가 동양론적 시각에 입각하고 있다는 논의와 더불어 가람의 행보를 단순히 내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주목된다.⁵³⁾

이러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제시한 가람의 근대의식에서 보여준 언어의식이나 매체의식/장르의식과 더불어 서민정신은 구태여 이식문화론을 의식하거나 배경으로 하여 기술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의 본질 탐구에 충실한 결과로 나온 이론이라는 점을 특별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가람의 근대의식은 서구의 것이 아닌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내재적·자생적 근대화론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음이다.

가람은 문학사에서 근대의 기점이나 근대성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람의 선각자적 의식은 1950년대 이미 서민정신과 서민문학을 주장했으며, 우리 문학사는 ‘고전문학사’와 ‘신문학사’를 합쳐야 온전한 문학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가람의 고전문학사·국한문학사와 백철의 신문학사가 합쳐진 『국문학전사』는 고전문학사와 현대문학사를 하나로 통합하여야 온전한 한국문학사가 될 수 있다는 가람의 의지가 굳게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가람이 기술하고 주장한 언문일치, 매체의 변화, 장르 인식, 서민정신 등 주요 근대성의 개념은 이식문화론이나 전통단절론이 아닌 지속과 변화의 문

52) 정출현, 「고전문학에서의 근대성 논의, 그 반성의 자리와 갱신의 계기」, 『국제어문』 35권, 2005, 98쪽.

53) 최원식, 앞의 글.

학사 개념으로, 근대화의 개념정립과 더불어 직접 창작하고 향유하는 문학의 실천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리 문학의 내재적 발전 과정을 탐구하는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선제적 타건을 이미 제시한 것으로, 진정한 근대화의 의식과 가치를 보여준 것이며 국문학의 범위·갈래·시대구분·연구방법론 등 근대성 담론의 근거와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람의 근대의식은 국어학과 고전문학, 현대문학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그것이 이념적이기보다는 한국문학의 문학성의 본질을 추구하는데서 나온 것이다. 가람의 근대성에 대한 탐구는 우리의 근대성, 합리성, 보편성 개념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또 이미 오래 전부터 참다운 보편적 사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서구 중심적 보편성’ 개념을 감싸 안고 넘어서는 새로운 ‘보편성의 사유양식’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이상의 고찰에 따라 현대 한국학의 지형도에서 가람 이병기는 단지 전통이나 과거의 수호에 머무르지 않고 근대를 향한 새로운 혁신 정신으로 우리 문학의 언어와 매체, 장르, 향유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근대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었음을 밝혔다. 이는 그 동안 가람의 학문이 전통주의라는 한정된 연구에서 벗어나 근대와 모더니즘이라는 확장된 시야로 폭을 넓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람 이병기의 근대성에 대한 탐색은 한국 문학의 내재적 발전론 대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려는 시도로서 오랜 이분법의 극복이라는 점에서 그 이론적 탐색과 더불어 근대성의 개념과 특징을 살필 수 있다. 특히 근·현대 한국 문단의 여러 맥락을 고려하면서 가람 이병기를 중심으로 근대의식과 그 특징을 고찰하고, 현재의 근대성 연구 지형에서 서구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한 외재적 이식문화론이나 일제의 군국주의적 발전사관에 의한 내재적 발

전론이 아닌 자생적 발전론의 의의를 살필 수 있었다.

가람의 전통지향과 근대지향에 대한 고찰은 우리 문학의 내적 근대성과 문학 외적 근대성의 대응양상을 역사 발전의 동적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 근대문학에서 가람과 같이 활동했던 모더니스트들과의 교유와 국제주의적 시각은 한국문학이 맺고 있는 안팎의 관련을 설명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한국 문학의 근대성 연구는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 개념을 넘어서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우리 문학에서 근대-이후(post-modern)를 말하기가 한층 어려워지면서 근대가 갖는 근대다운 성격, 곧 근대성을 해명하는 과제는 한층 중요해졌다. 더불어 가람 이병기의 근대성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심도 있는 논의와 그의 근대의식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근대'라는 의식의 탐구로 우리 문학의 지향점과 이정표의 한 표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람의 근대의식은 문학사를 비롯하여 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와 통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이병기 저, 정병욱 최승범 편, 『가람일기』, 신구문화사, 1976.
- 이병기, 백철,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 이병기, 『국문학개론』, 일지사, 1951. 148쪽.
- 이병기, 『가람시조집』, 문장사, 1939.
- 이병기, 『시조와 창작론』 제1권, 발행자불명, 1957.
- 이병기, 『시조의 개설과 창작』, 현대출판사, 1957.
- 이병기, 주해, 『한중록』, 백양당, 1947.
- 이병기, 『가약사초』, 『국어국문』 4권 3호, 1955~ 5권 1호, 1956.
- 이병기, 『겹말』, 『한글』 1권 4호, 1927. 6.
- 이병기, 『고시조와 현대시조』, 『전북대학교보』, 1956. 3. 10.
- 이병기, 『고전문학에 나타난 향토성』, 『민중일보』, 1947. 4. 20.
- 이병기, 『고전의 삼폐』, 『국도신문』, 1949. 5. 18.
- 이병기, 『구전문요의 묘미』, 『서울신문』, 1946. 11. 10.
- 이병기, 『국학의 세 거인』, 『민성』 6권 1호, 1950. 1.
- 이병기, 『극가와 소설』, 『전북대학교보』, 1955. 3. 24.
- 이병기, 『긴급한 국어문제』, 『조선일보』, 1949. 2. 11. - 2. 15.
- 이병기, 『놀애의 소리와 뜻』, 『현대평론』 1권 7호, 1927. 8.
- 이병기, 『말 모르는 작가들』, 『한글』 7권 8호, 1939. 9.
- 이병기, 『말과 글(1강)』, 『한글』 2권 5호, 1934. 8),
- 이병기, 『말은 인간의 거울 : 우리말을 찾으라』, 『동아일보』, 1938. 1. 4.
- 이병기, 『말의 관습으로 된 변화』, 『동광』 10호, 1927. 2. .
- 이병기, 『민요와 시조』, 『조선일보』, 1949. 12. 9. -12. 12.
- 이병기, 『민요잡고(상/하)』, 『태양신문』, 1949. 11. 22. - 11. 25.
- 이병기, 『습수록』, 『농업조선』, 1939. 9. - 1941. 1.
- 이병기, 『시가문학의 본질과 형태』, 『국어문학』 2권 2호, 1954.

- 이병기, 「시의 진리」, 『시조와 창작론』, 1957.
- 이병기, 「시조 감상과 작법」, 『삼천리』 8권 4호, 1936. 4~1935. 12.
- 이병기, 「시조는 부흥할 것이나 : 무엇이던지 정성스럽게 하자」, 『신민』 23호, 1927. 3.
- 이병기, 「시조는 창이나 작이나」, 『신민』 58호, 1930. 5.
- 이병기, 「시조는 혁신하자」, 『동아일보』, 1932. 1. 23.- 2. 4.
- 이병기, 「시조란 무엇인가」, 『동아일보』, 1926. 11. 24.-12. 13.
- 이병기, 「시조를 뽑고」, 『문장』 1권 6호, 1939. 6.
- 이병기, 「시조론-그 명칭과 형태에 대하여」, 『조선교육』 1권 4호, 1947. 8.
- 이병기, 「시조와 그 연구」, 『학생』 2권 1호-9호, 1930. 1.-10.
- 이병기, 「시조의 기원과 그 형태」, 『조선일보』, 1935. 1. 1.-1. 13.
- 이병기, 「시조의 발생과 가곡과의 구분」, 『진단학보』 창간호, 1934. 11. 28.
- 이병기, 「시조의 현재와 장래」, 『신생』 2권 4호, 6호, 7호, 1929. 4 - 6.
- 이병기, 「시조의 형태」, 『동아일보』, 1940. 3. 5.-3.10.
- 이병기, 「시조창작과 그 기술」, 『자유문학』 4권 4호, 1959. 4.
- 이병기, 「시조창작과 창」, 『현대』, 1957.
- 이병기, 「신철자법을 실행하라」, 『동아일보』, 1930. 11. 19.
- 이병기, 「시화」, 『박문』, 1940. 10.
- 이병기, 「우리말에 섞인 한어 문제,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조선일보』, 1939. 11. 19.
- 이병기, 「우리말의 표기에의 몇몇」, 『동광』 9호, 1927. 1. 1.
- 이병기, 「우리문자의 보급책-정음사용으로 활자개량에까지」, 『신민』 19호, 1926. 11.
- 이병기, 「율격과 시조」, 『동아일보』, 1928. 11. 28.-12. 1.
- 이병기, 「이것이 이거시냐 이거디냐」, 『조선일보』, 1927. 10. 24.-10. 25.
- 이병기, 「조선민요의 특성」, 『예술신문』, 1946. 10.
- 이병기, 「조선어 연구가 필요」, 『문예공론』 1호, 1929. 5.
- 이병기, 「토별가와 신오위장」, 『문장』 2권 5호, 1940. 5.

- 이병기, 「한자 음독」, 『전북대학교보』, 1955. 5. 25.
 이병기, 「한시절구와 시조와의 관계」, 『조선일보』, 1939. 1. 1.
 이병기, 「한자 존폐에 대한 소감」, 『백민』, 1947. 9. 5.
 이병기, 「향가와 현대시 : 시어의 원천을 밝힘」, 『동아일보』, 1939. 1. 11. - 1940. 1. 17.
 이병기, 「향토문학에 대하여」, 『삼천리문학』 1집, 1938. 1. 1.
 이병기, 「황진이 예술」, 『춘추』 2권 4호, 1941. 5.

2) 논저

- 김영민, 「춘원 이광수 문학의 근대성 연구」, 『민족문학과 근성』, 문학과지성사, 1995.
 김용직, 「“문장”과 문장파의 의식성향 고찰」, 『선청어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1995.
 김윤식, 「“문장”지의 세계관」,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김윤식, 「시조의 재창조와 그 한계-가람론」,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1973.
 김윤식, 「주자학적 세계관과 시조 양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김효석, 「<문장>지 특성에 대한 再考」, 『어문논집』 61, 2015.
 문혜윤, 「조선어 문학의 역사 만들기와 ‘강화(講話)’로서의 『문장』」, 『한국근대문학연구』, 2009.
 박진숙, 「가람의 국학운동과 이태준- ‘조선어’ 문학의 구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3집, 2014. 8.
 박현호, 「식민지 조선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근대 미디어와 지식인, 문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현호 외,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박현수, 「한국 전위시의 조건과 근대출판의 시학」, 『정신문화연구』 제3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배개화, 「이병기를 통해 본 근대적 문학어의 창안」, 『어문학』 89, 2005.

- 배개화, 『『문장』지의 내간체 수용 양상』 『현대소설연구』 21, 2004.
- 우은진, 「1920-40년대 시조 담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강하, 「매체적 관점에서의 한국근대시 시제(詩題) 연구 : 개화기시가에서 근대자유시 이전까지」, 『한국언어문학』 92, 2015.
- 이경애,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을 위한 자료 정리 및 가람학 정립의 방향 연구, 『국어문학』 64, 2017. 3.
- 이기반, 「가람 시조의 운율성; 다양성에의 혁신」, 『시조문학』 103집, 1992. 6.
- 이민희, 「동향 :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 저작물에 관한 기초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58권, 2015.
- 이선희, 「가람 이병기 시조에 나타난 전통성 연구」, 『청람어문교육』 11권 1호, 1994.
- 이재복, 「가람 이병기의 「時調는 革新하자」에 나타난 현대성의 의미」 『우리말글』 52, 2011.
- 이정환, 「전통적 서정성과 생명 미학론」, 『청람어문교육』 제30집, 2005.
- 이지엽, 「가람시조의 혁신성과 현대적 계승」, 『우리시대 현대시조 작가론Ⅱ』, 태학사, 2007.
- 이형대, 「가람 이병기와 국학」, 『민족문학사연구』 10집,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 정출현, 「고전문학에서의 근대성 논의, 그 반성의 자리와 갱신의 계기」, 『국제어문』 35권, 2005.
- 정출현, 「국학과의 ‘조선학’ 논리구성과 그 변모양상」, 『열상고전연구』 27집, 2008.
- 차승기, 「1930년대 후반 전통론 연구 : 시간-공간 의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 논문, 2003.
- 차승기, 「근대문학에서의 전통 형식 재생의 문제 : 1920년대 시조부흥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7, 2006.
- 차혜영, 「『조선학』과 식민지 근대의 ‘지(知)’의 제도 -『문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0호, 2005. 9.

- 최승호, 「가람 이병기의 시와 시학에 있어서 유가적인 미적형상방식」, 『아주어문 연구』 제1집, 1994.
- 최승호, 『한국현대시와 동양적 생명사상』, 청운, 2013.
- 최원식, 「고전비평의 탄생-가람 이병기의 문학사적 위치」, 『민족문학사연구』 49, 2012. 8.
- 한기형, 「"이중출판시장"과 식민지 검열 -"토착성"이란 문제의식의 제기」, 『민족문학사연구』 57, 2015.
- 한형구, 「한국 근대 문학과 '민족'(民族)이라는 상상 공동체- 민족주의적 정열, 혹은 한국근대문학 형성의 주동력」, 『한국근대문학연구』 제6권 제2호, 2005. 10.
- 허윤희, 「조선어 인식과 문학어의 상상」, 『민족문학사연구』 26, 2004.
- 황종연, 「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1930년대 후반기 문학의 전통주의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 황종연, 「이병기와 풍류의 시학」, 『한국문학연구』 제8권, 1985. 6.

3) 번역

- 마셜 맥루언, 김성기·이한우 역,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2.
-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3.
- 윌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Abstracts】

Beyond the traditional direction of orientation
and modern orientation

-Garam Lee Byeong-gi's Modern consciousness -

Lee Kyeong-a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arrangement of the works for the publication of Garam Lee Byeong-gi's complete works and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the study of Garam. The publication of Garam Lee Byeonggi's complete works is to investigate, collect, arrange, and publish all his works that he wrote during in his lifetime, that is, all his separated volumes and all materials that were published in newspapers and magazines. Garam Lee Byeong-gi's complete works will be published in October 2017.

The volumes that will be published in Garam Lee Byeong-gi's complete works are two sijo collections, a volume of sijo theory, a volume of Korean literature history, a volume of an outline of Korean literature, eight annotated books, six translation books and the selections, 11 textbooks, two bibliography, one history book for children, the handwritten diaries (49 notebooks), and one notebook of archaic words. They are in total 35 kinds of books. Also, if about 850 writings published in over 118 newspapers, magazines, and scholarly journals and 47 school songs are added, all materials amount to about 930 pieces of writing. These vast and different works will be printed in compilation which will be made up

of all 25 volumes.

Key words : Garam Lee Byeong-gi, Sijo poet, Modern consciousness, Modernity, Modernism, Media consciousness, Main agent of enjoyment, Popular literature, Spirit of the working class

이 논문은 2018년 10월 0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11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11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